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손으로 보는 세상



10월이 되자 곳곳에 단풍이 만연해졌습니다. 가을에 찾아오는 단풍!
 단풍을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단풍”은 점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풍”은 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원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쓰	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 부호	.	?	!	,	-	~
	:	:	:	출입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단풍 02

테마기획 |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04

우리복지관에서는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 적립포인트 카드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 06

뉴스앨범 | BF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제4회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연수 실시 08

함께 사는 이야기 | '2014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참여 후기 /
김현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학년) 09

인터뷰 | 노인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정철우님을 만나다.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의 역사-타자기 12

포커스 | 시각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14

2014 10
vol. 171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10호 통권 171호

발행일 2014년 10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31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전 화 02-950-0107 팩 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리아(02-542-5064)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시각장애인의 자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행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15일은 흰 지팡이 날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보행을 할 때 흰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보행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보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언제부터 흰 지팡이를 사용했을까요?

원래 지팡이는 병약자나 노약자가 약한 몸을 의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을 때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각장애가 생긴 상이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안과 의사 리처드 후버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도록 지팡이에 흰 색을 칠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흰 지팡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93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흰 지팡이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어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기 위해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각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매년 10월 15일에는 시각장애인의 상징물인 흰 지팡이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제35회 흰 지팡이 날을 맞았습니다.

흰 지팡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지부가 주관하는 제35회 흰 지팡이 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 복지대회”는 10월 15일 경기도 가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보행을 하는 흰 지팡이 대행진을 시작으로 기념식, 문화마당 등이 실시됩니다. 특히 문화마당에서는 노래자랑, 점자경시대회, 헬스키피 시연, 점자명함갓기 운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호성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생한 서울시의회 의원, 우창윤 서울시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복지관의 운영법인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 복지의 산실인 복지관이 재건축을 통해 다시 능률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복지관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와 건축기간 동안 불편을 견뎌준 시각장애인 이용자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개관기념 테이프커팅, 기념식, 시설 견학이 이뤄졌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상 생활훈련실, 음악치료실, 시각장애인재활용구전시장, 자원봉사실, 직업적응훈련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적립포인트 카드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생활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적립포인트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적립포인트 카드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립포인트 카드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포인트 카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오케이캐쉬백, 해피포인트, CJ One, Oh! 포인트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회원가입, 보유카드 확인, 포인트 내역 조회, 포인트 조회, 이벤트 확인을 할 수 있는 지 조사해본 결과 해피포인트, CJ One 카드는 5개 서비스 모두 이용이 불가능 했으며 Oh! 포인트는 보유카드 확인 서비스만 가능했습니다. 오케이캐쉬백은 4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에 사실상 미리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그인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아직까지 모바일 이용에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수행 결과	회원 가입	보유카드 확인	포인트 조회내역	포인트 조회	이벤트 확인
오케이캐쉬백	실패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해피포인트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CJ One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Oh! 포인트	실패	이용가능	실패	실패	실패



BF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에서는 BF인증제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BF란, 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말하는데요, 즉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BF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모두를 위한 건축으로써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BF인증제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에 임해주셨습니다.



제4회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26일 양일간 경주에서 제4회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즉,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모여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직원연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및 기관의 변화와 자기 개발을 위한 셀프리더십 등 강의가 이어졌으며, 강의를 끝난 이후에는 업무부서별로 모든 복지관 종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교류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참여 후기

장애인의 나라, 영국!

김헌용 (시각장애 1급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학년)

여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축구와 펌, 버킹엄 궁전과 대영박물관으로 유명한 나라. 하지만 영국을 장애인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 이번에 영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2014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사업에 참여했다. 참가 주제는 '시각장애인 전문 통번역사의 길 모색'이었다.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현재 내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을 전공하면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각장애인 번역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다.

우리는 왕립시각장애인협회(RNIB)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 왕립시각장애인협회는 1868년 시력에 문제를 겪던 의사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영국 최대 장애인 단체이다. 하는 일은 각종 캠페인(정치인이나 정부와 접촉하며 권익 활동을 하는 일까지 포함), 전화상담, 시각장애 관련 연구,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교육, 고용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장애 관련 웹사이트는 물론, 다양한 문화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왕립시각장애인협회로 연락해보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만큼 협회가 시각장애인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많은 홍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통역사로 일하는 엔드류와 대학에서 번역을 전공했다는 타라였다. 먼저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국에서는 통번역사가 그다지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 오는데 국민들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통번역사가 필요한 경우도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문했다. 그럼 당신들은 왜 통역과 번역을 하냐고, 그들의 대답은 또 다른 반전이였다. 그저 좋아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했다. 오케스트라 공연과 연극을 관람했고 대영박물관을 방문하고 런던 시내를 돌아다녔다. 문화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을 미리 웹사이트에서 충분히 조사해보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웹사이트 접근성은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고, 런던 시내 주요 문화재를 화면해설로 들을 수 있는 팻캐스트도 있었다. 내가 영국에서 느낀 것은 영국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행복 추구가 우선인 사회라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장애인이 많고, 그렇기에 곳곳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를 인용하고 싶다. 영국의 총인구는 6천 3백만 명이고 그 중 장애, 건강상의 불편함을 지닌 인구는 1천 1백만 명(약 18%), 시각장애인은 2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고 그 중 장애인은 250만 명(약 5%), 시각장애인은 25만 명이다. 선진국인 영국에 왜 장애인이 더 많을까? 그것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지원을 기준으로 장애인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영국 사회가 얼마나 장애를 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 진정 영국은 장애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인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정철우님을 만나다.



▲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 안마 중인 정철우님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 이뤄졌는데요. 시상식에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1급 시각장애인 정철우님입니다. 정철우님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대전에서 한강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입니다. 정철우님이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을까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정철우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Q 우선 대통령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대전 지역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A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안마를 해서 번 돈으로 주위 노인분들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끌고 다니는 실버카가 있습니다. 작은 유모차처럼 생겼는데요, 노인분들에게 실버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몇 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결과 650명의 노인분들이 실버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이 없을까 생각한 결과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경찰서 정보과에 기부를 해서 매달 탈북 노인분들의 생활비를 돕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안마사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하고 무료로 안마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한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Q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A 사실 제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1급 시각장애인이지만 선천적 시각장애가 아니었어요,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살때 고아가 되서 영양실조로 야맹증이 생겼습니다. 그 때 눈을 고친다고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아예 실명하게 됐고요,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마뿐이었습니다. 안마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매진했구요, 그 결과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입소문이 났는지 유명한 운동선수, 내로라하는 유명인사들이 오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어려운 노인분들, 불우한 청소년 등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Q 인터넷에서 정철우 님 이름을 검색해보니 이전에도 많은 상을 수상하셨네요. 또 대전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수여하셨는데요.

A 네, 사실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맹학교도 중학교 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끊임없이 안마하고 공부한 결과 60살이 넘어서 송원대학교 자연요법과와 대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대전대학교 대체의학과 석사과정을 공부중이고 또 대전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가 되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어요, 60세 이전에 제 학력은 중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 대전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매 순간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신다면요?

A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안마를 한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기술한도 내에서 안마를 하고요, 곳곳에 계실 시각장애인 후배들이 안마를 열심히 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였던 제가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안마 덕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의 역사 타자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보조공학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회중점판을 개발했고 1963년에 33칸 점자판을 개발하였으며 1976년에는 흰 지팡이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 생활용구를 개발하였으나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타자기, 전화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시각장애인의 생활 역시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고 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독립성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이 발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많은 보조공학 제품이 있지만 이번 흰 지팡이 발차취에서는 타자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자기가 개발되면서 시각장애인도 정안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묵자(일반활자)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자기는 언제, 어떻게 발명된 것일까요? 타자기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경 타자기의 발명이 여러 사람에 의해 시도되었는데요. 이 당시 대부분의 타자기는 너무 크고 다루기가 불편해서 오히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그러던 중 1867년 미국의 인쇄공 쇼울스가 영국에서 발명된 타자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영감을 얻어 최초로 실용적인 타자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듬해 1868년에 쇼울스가 두 번째로 특허를 얻은 타자기는 타자를 치는 속도가 훨씬 증가해 실용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쇼울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몇 년 동안 타자기를 개량하여 1873년 총기 제조회사인 레밍턴앤드선즈사와 제작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타자기는 곧 시장에 등장했고 곧 '레밍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타자기의 특징 중 몇몇 특징은 현대의 타자기에도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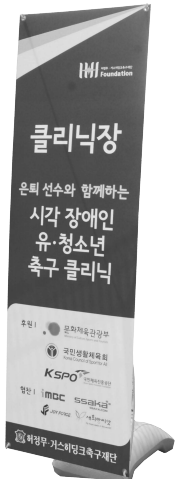
이렇게 타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쓰이는 실용적인 제품이 된 후 시각장애학생을 교육하는 윌리엄 처치맨은 쇼울스에게 타자기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개량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타자기 자판은 40개의 자판이 모두 한 줄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를 10개씩 나누어 4줄로 배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쇼울스는 윌리엄의 부탁대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타자기를 개량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타자기를 사용하여 묵자를 쓸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에 타자기 제조업자들은 맹학교에 타자기를 할인가격으로 공급했고 이에 미국의 맹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타자교육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시각장애인들은 타자기를 이용해 문서작업을 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타자수로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시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 우리나라에서는 타자기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호에서는 한글 타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임안수, 2010년)」 참고



시각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지난 9월 27일, 28일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에서는 ‘은퇴선수와 함께 하는 시각장애인 유·청소년 축구 클리닉’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허정무·기스하딩크축구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협력했는데요.

이번 축구 클리닉에서는 은퇴 축구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시각장애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허정무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삼수 전 서울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박태하 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김상호 현 U-20 청소년 대표팀 감독, 김정혁 전 축구국가대표가 참석했으며,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유·청소년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각장애 유·청소년들과 은퇴선수들은 경기 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몸 풀기 운동을 하고 은퇴 선수 및 코칭스텝이 시각장애 유·청소년에게 기본기술을 직접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기본기술을 익힌 후에는 직접 경기를 실시했는데요.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배운 기술들을 직접 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경기 후에는 은퇴선수들과 경기를 평가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유·청소년도 비장애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축구같은 운동을 통해 체력증진 및 협동력 강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 유·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2014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3/4분기 정산내역

후원금

세 입		세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116,799,252	계	116,799,252
지정후원금	10,000,000	CMS메카	99,000
비지정후원금	7,857,100	CMS사용료	99,000
접수입	21,806	CMS이체수수료지출	16,925
CMS이체수수료수입	16,925	소식지 제작사업비	1,000,000
		소식지 발송 우편료	93,330
		지정후원 - 물품구입비	6,110,900
이월금	98,903,421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	10,659,031
		말반찬지원사업	50,000
		장학사업비	1,755,640
		이월금	96,915,426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우리은행 1006-601-222753

· 외환은행 170-22-00710-6